

“긴 연휴 짧게 느껴져”... 아쉬움 뒤로 하고 일상으로

연휴 마지막 날 터미널·역 가보니

두손에 짐 가득한 인파로 붐벼 승차장서 가족들 배웅 이어져 “고향서 가족·친구와 즐거운 시간”

“오랜만에 부모님이 해주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6일간의 연휴도 짧게 느껴졌어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들의 발걸음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는 긴 설 연휴를 고향에서 보내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인파로 북적였다.

대합실 의자는 고운 색깔을 띠는 보파리와 큼직한 캐리어를 끌고 자리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이들로 이미 만석을 이뤘다.

빈자리를 찾기 못한 이용객들은 선물 세트, 반찬 등의 짐을 양손에 한아름 들고 구석에 자리를 잡고 선 채 자신이 타야 할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정주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정유진(21)씨는 “타지에서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 할머니 손맛이 담긴 집밥이 그리웠는데,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고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며 “곧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가족들과 함께 보낸 사소한 일상도 너무 소중하고 좋았던 것 같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활기차게 신년을 맞았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버스 출발 시간이 되자 의자에 앉아 있던 이들이 바닥에 내려놓은 짐을 챙기고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광주송정역에서 배웅 나온 한 부모가 기차에 오른 자녀들에게 손을 흔들며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나건호 기자

하나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남은 가족들은 버스 탑승 구역까지 이용객들을 따라가 짐을 실어주거나 포옹하는 등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다.

인천행 버스 앞에서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던 이진주(32)씨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고향에 자주 내려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서 간만에 오래 머물다 간다”며 “올해는 처음으로 차례를 지내는 대신 부모님을 모시고 근교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만족스럽고 언제 또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지 모르겠어서 더욱 아쉬

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배웅하던 어머니 김영숙(60)씨는 “간만에 딸이랑 시간을 보내는 거였는데 금세 연휴가 끝난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며 “연휴가 다 끝나고 나서야 날이 풀려서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도로가 미끄러울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부디 딸이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했으면 좋겠다”고 염원했다.

같은 날 오전 찾은 광주송정역 광장은 열차 시간을 놓칠까 발걸음을 재촉하는 시민들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긴 명절 연휴를 마치고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의 얼굴에는 짙은 아쉬움이 묻어났다.

김인경(48)씨는 “고향 광주에 와서 오랜만에 가족,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간다”며 “연휴 기간 많은 눈이 내리면서 외출과 통행에 불편이 있긴 했지만, 임시공휴일 덕에 여유롭게 명절을 보냈다. 가족과 지인들 모두 건강하고 힘차게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자녀를 태운 열차가 플랫폼을 떠나 멀어질 때까지 손을 흔든 뒤,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부모의 마음도 허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김희원(74)씨는 “서울에 사는 둘째 딸을 열차에 태워 보내고 오는 길이다. 어느덧 장성해 타지에서 가정을 꾸리고 지내

는 자식들이 기특한 마음이다”면서 “연휴 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어도 아쉽고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다. 늘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직장 생활로 바쁜 자녀들을 위해 명절 음식을 양손 가득 들고 역귀성길에 올랐던 노부모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김동현(77)씨는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딸을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 갔다가 광주로 돌아오는 길이다”며 “자녀들과 함께 박물관 등을 찾아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를 즐기는 등 풍족한 명절 연휴를 보냈다”고 귀띔했다.

정유철·정상아·윤준명 기자

살인·방화... 설 연휴 광주·전남 사건사고 잇따라

광주 동구서 치매 노모 살해 합평 편의점 말다툼 중 방화·빙판길 교통·낙상 사고 다수

평온한 명절 분위기로 가득해야 할 설 연휴 기간 광주·전남지역에는 살인과 방화 등 강력 사건과 교통·낙상사고와 같은 각종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랐다.

30일 광주 동부경찰은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A(6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2시11분께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후 2시27분께 합평 대동면 향교리의 한 편의점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나 소방 당국에 의해 9분여만에 진화됐다.

경찰조사 결과 편의점 주인 B(46)씨는 아내 C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휘발유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B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고, 그를 말리던 C씨도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편의점에 이들 부부 외 손님은 없어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연휴 기간 교통 사망사고부터 추락, 실종사고 등 각종 사고도 연이어 발생했다. 설 당일이던 지난 29일 오후 3시15분께



지난 27일 오후 2시27분께 합평 대동면 향교리의 한 편의점에서 불이 났다.

합평소방 제공

순천 서면 순천-완주고속도로(순천방향) 서면1터널 1차선 도로에서 70대 후반 남성 D씨가 몰던 승합차가 터널 내부 벽면을 들이받고 좌측으로 전도됐다.

사고 승합차에 탑승한 6명 중 D씨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D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7시2분께 나주 봉황면의 한 마을 편도 1차선 도로에서 70대 E씨가 몰던 SUV에 50대 F씨가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F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E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전 4시58분께 여수 삼산면 손죽도 남동쪽 약 12km 해상에서 낙지통

발을 회수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G씨가 해상으로 추락해 실종됐다.

신고가 접수된 선박은 4톤급 통발어선으로 사고 당시 G씨는 구멍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10시33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월드킴경기장 인근 2차선 차도를 건너던 H(63)씨가 SUV에 치여 사망했고, 오후 9시30분께 동구 소태동 동부문화센터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I(71)씨가 1톤 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오전 10시33분께 해남 해남읍의 한 양계장 공사 현장에서도 40대 남성 J씨가 3m 아래 구덩이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J씨는 본인 소유의 양계장 신축공사에서 추가 수리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휴가 시작된 지난 25일 오후 12시47분께 진도 군내면 진도대교 인근 도로에서도 50대 여성 K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추돌하면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휴 3일차인 지난 27일부터 마지막날인 30일 이른 오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최대 18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 교통·낙상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광주에서는 낙상 14건, 교통사고 1건, 빙판 안전조치 1건 등 총 1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전남에서는 낙상 3건, 교통사고 3건, 안전조치 4건 등이 접수됐다.

민현기·정상아·윤준명 기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별세...향년 105세

일본·전범기업 사죄요구 앞장서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와 전범기업에 의해 강제동원돼 해방 후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배상문제에 앞장섰던 이춘식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105세.

30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7일 오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점기이던 1920년 나주에서 태어난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 위치한 일본제철의 사업장으로 강제동원됐다.

열악한 환경 속 3년여간 지속된 고된 노역과 공습 위험을 견디던 중 기다리던 해방을 맞았지만, 이 할아버지는 강제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끝내 받아내지 못했다.

이후 1997년 일본 법원에 일본제철을 상대로 체불된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2005년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요구에 앞장섰다.

2018년, 기나긴 싸움 끝에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확정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 기업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2023년 3월 한국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국내 민간 기업이 출자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식인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내놨다.



지난 2022년 9월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민현기 기자

이 할아버지는 변제안 발표 이후 강한 비판과 함께 배상금 수령을 거부해 왔으나, 지난해 10월 정부의 회유 끝에 가족들이 해법을 수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며 “이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역사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